

미스코리아 선발대회
가 부성으로 등록져왔다
는 뉴스가 못 여성들사
이에 화제가 되고있는가
운데 휴가철이 시작되고
대학가가 일제히 방학에
들여간 6월말부터 성형
외과에는 여대생과 사부
직 여성들의 발길이 이
어지고 있다. 각 성형외
과에는 보통때보다 성형
수술 관련 상담을 하러
오는 손님들이 약 30~50
%까지 늘어났다.

서울강남구 안국정동
모성형외과를 찾은李明
모(22·대학3년)은 "1학
년 여름방학때부터 상담
수의 과친구들이 성형수
술을 스스로없이 하는것
을 보고 용기를 내서 이
번 방학을 이용해 쌍꺼
풀 수술을 하기로 결심
했다"고 말했다.

사회의 개방화 추세와
맞추어서 성형수술에 대
한 세대도 하루가 다르
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
이 성형외과 의사들의
말이다. 우선 가장 큰
변화는 일반사람들의 성
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
상당히 떨어졌다는 점.
서울명동에서 9년째 성
형외과를 하고 있는 김
炫澈씨는 "2년전만하더
라도 사람들이 병원문턱

을 넘어서기까지 많은
고민을 하고 또 병원을
찾아와서도 부끄러워했
으나 최근에는 스스로 없
이 병원을 찾는다"고 말
했다. 또한 성형수술하

“휴가다녀오더니 예뻐졌네요”

女大生 직장여성 성형수술 유행

술도 요구하는 여성들이
크게 늘었다는 것.

뿐만 아니라 중장년층
의 변화도 괄목할만하
다. 대부분의 여학생들이
부모의 허락을 받거나
부모와 함께 성형외과를
찾고있고 일부는 부모들
이 적극 권해서 성형외
과를 찾는 경우도 있다
는 것.

남편 몰래 성형수술을
하던 과거의 모습과는
달리 남편과 함께 성형
외과를 찾는 30~50대 부
인도 크게 늘었다는 거
이 병원관계자들의 귀띔
이다.

남자들의 경우에는 최
지시현을 앞둔 대학생들
이 얼굴의 흉터를 지우는
수술이 대부분이지만 쿨
를 높이거나 쌍꺼풀수술
을 하러 찾아오는 10대
오렌지족도 꽤 있다고 성
형외과의사들이 말한다.
『정신적인 미를 도외시
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
만 신체의 미에 있어서
도 선구화된 기준이므로
자신의 얼굴과 몸매를
거울에 비춰보는 젊은여
성들이 늘어나는 성형
외과를 찾는 여성들의
늘어날 수밖에 없다는
게 의사들의 얘기다.

(李炳奇)

33.7.3 50원 여름철 상담 30~50%늘어 “즐거워 비명”

「人造美人」거부감 줄어 : 부부가 함께 오기도